

담양군,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6개 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 질의·응답 시간 가져 5개면 6개 마을 1200여 필지 대상 측량비 국비로

담양군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6개 지구인 담양읍 운교마을, 가산 회룡마을, 봉산면 삼지마을, 고서면 성월 증암마을, 대덕면 장산 장동마을, 대전면 행정 덕진마을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각 지구를 순회하며 진행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사업지구 추진 배경·절차, 사업 후 기대효과,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말소시키고, 현재 사용 형태 그대로 측량

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로이 만드는 사업이다. 기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으며, 토지형태 정형화, 맹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마을 안길에 편입되어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내 땅에 대해서도 이번 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운교지구, 행정지구, 장산지구는 지적 간 중첩이나 이격이 심한 지적불합치지역으로 기존 측량으로는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 이번 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적재조사사업은 2020년보다 사업 규모를 3배 확대해 총 5개면, 6개 마을, 1,2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군은 사업지구 지정 조건인 토지소유자 2/3이상, 토지 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충족되는 대로 전라남도에서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2021년 1월부터 측량을 실시하여, 경제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담양=박종영기자

송만갑판소리 · 고수대회 개최

구례군, 코로나19 예방 위한 무관중 방식으로 개최

구례군이 주최하고 (사)한국국악협회 구례군지부(지부장 유순자)가 주관하는 '제24회 송만갑판소리·고수대회'가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구례실내체육관 및 동편제판소리전수관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동편제판소리축제기간 중에 대회를 개최 할 예정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축제는 취소되고, 경연대회만 개최하였다. 올해로 스물 네번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무관중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예선을 2곳(실내체육관, 동

편제판소리전수관)에서 진행하여 참가인원을 분산시켰으며 대회장 안팎으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대회는 220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판소리 부문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에 유민희(35세, 구례출신)씨가 선정되어 부상금으로 상금 2천만 원을 수상하였다. 고수 부문 명고부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최재명(20세, 서울에대출)씨가, 전라남도지사상인 명창부 최우수상에 박애란(22세, 경기 성남) 씨가 선정되어 부상금으로



각각 3백만 원을 수상하였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 개최를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동편제 판소리의 명맥을 이어 온 우리군에서 대회를 취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최 할 수 있어 기쁘며, 내년에는 동편제판소리축제와 더불어 판소리의 정통성과 대중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풍성한 문화예술축제를 준비 하겠다"고 전했다. 구례=박진호기자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감교육 실시

곡성군, 가족과 함께 하는 생태문화탐방 실시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지난 10일, 11일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감교육'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하는 생태문화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감교육은 아이들이 자연친화적 교육공간에서 생태와 문화를 배우고서 창의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30~40명씩 단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따라 가족별 소규모 형태로 전환해 운영했다. 각각의 참가 가족들은 제작된 교

육영상을 보며 태안사 숲길, 대항강 출렁다리, 123박물관&김갑진 갤러리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다. 이번 공감교육에는 별다른 홍보가 없었음에도 곡성군뿐 아니라 광주, 순천 등 인근 지역까지 총 11가족이 참여했다. 자연과 지역문화로부터 창의력을 기르고자하는 아이들과 부모들로부터 조용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청춘 문화살롱 통해 청년에게 활력 충전

다양한 분야 강의 · 체험 활동 6차례 운영...청년20명 참여



화순군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적 활동을 도모하고 청년공동체 문

화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화순군 청춘 문화살롱'을 운영하고 있다. 청춘 문화살롱은 2019년 화순군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강의와 체험 활동으로 6차례 운영한다. 청춘 문화살롱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12월 10일 퍼스널 컬러 찾기, 핸드드립 커피 체험을 통한 심신의 피로 풀기, 호감을 주는 대화 기법, 가족지갑 공예를 통한 자아 성취 도달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8일에는 '핸드드립 커피 체험'을 통한 심신의 피로 풀기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지친 청년들에게 진한 커피향을 전했다. 이날 정경옥 강사는 커피의 유래, 좋은 커피 고르는 법, 케냐에서 직수입한 무농약 생두를 이용한 로스팅 과정, 그라인더 사용 방법, 핸드드립 요령 등을 강의하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 수강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군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2021년에 청년센터가 개소되면 '화순군 청춘 문화살롱'이 청년들의 소통과 문화 창구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시, 옥상 텃밭정원 개장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일환 농업기술센터 3층 조성



나주시가 농업기술센터 건물 옥상에 텃밭과 정원이 어우러진 텃밭 공간을 조성했다. 나주시는 12일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 3층 옥상에 조성한 발전원 '꽃구름' 개장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도

시농업공간 조성은 도시농업 인프라 확대 및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영도시 농업농장 △실내식물 조정시설 등을 추진한다. 2년 연속 공모 선정에 힘입어 지난 해 빛가람동행정복센터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옥상 공간 500㎡(총면적 1080㎡)에 텃밭정원을 조성했다. 국비 등 사업비 7800만원이 투입된 옥상텃밭정원은 '지역(7)자 형태로 채소와 허브 등 텃밭상자와 테이블과 벤치 등 휴식 기능을 갖춘 아담한 카페 공간이 마련됐다. 기동취재본부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